



국내 보험산업의 해외재보험 손익 현황

김석영 연구위원, 이소양 연구원

2017년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해외재보험 수재에서 약 4,197억 원의 이익을 실현하였지만 해외재보험 출재로 약 9,253억 원의 비용을 부담함. 해외재보험 출재는 위험발생 시 보험가입자인 제조 기업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규모가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의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해외재보험 출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손해보험산업은 해외재보험 수재를 확대하고 있음. 해외재보험 수재 확대를 위해서는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와 보험회사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2017년 국내 손해보험회사¹⁾들은 해외재보험 수재²⁾를 통해 약 4,197억 원의 이익을 실현하였지만 출재³⁾를 통해 약 9,253억 원의 위험전가비용을 부담함⁴⁾

- 위험발생 시 보험가입자인 국내 제조 기업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규모에 비하여 위험을 인수하는 국내 보험산업의 자본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출재가 불가피함
 - 해외재보험 출재로 인한 위험전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해외수재를 통해 이익을 확보함

1) 재보험회사들은 손해보험회사로 분류되지만 재보험회사들은 생명보험회사의 위험도 수재하기 때문에 수재보험료에는 생명보험회사의 출재가 포함됨
 2) 수재보험료는 목적물의 소재지 기준으로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고 출재보험료는 보험료를 수재하는 곳에 따라 국내와 해외로 구분함
 3) 해외수재를 통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들은 해외출재와 함께 해외수재를 동시에 함
 4) 국내재보험 거래에서는 수재를 통하여 약 1조 2,389억 원의 이익을 실현한 반면 출재를 통하여 약 1조 1,5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여 889억 원의 이익을 실현함

〈표 1〉 2017년 손해보험산업 재보험 손익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국내재보험		해외재보험		합계
	수재	출재	수재	출재	
손익	12,389	-11,500	4,197	-9,253	-4,167

출처: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 통계

■ 국내 손해보험산업은 재보험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해외재보험 수재를 확대하고 있으나 해외재보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2014년 이후 확대되고 있음

- 해외수재보험료는 2014년 1조 6,288억 원에서 2017년 2조 1,524억 원으로 32.1% 증가하였으나 이익은 2014년 3,969억 원에서 2017년 4,197억 원으로 5.7% 증가하는데 그침
 - 2017년 해외수재보험료는 삼성화재와 코리안 리가 각각 2,771억 원, 1조 5,230억 원의 보험료를 수재하여 전체 해외수재보험료의 84%를 차지함
 - 코리안 리는 해외수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생명보험 해외수재를 늘리고 있음
- 해외재보험 출재 손실은 동기간 5,193억 원에서 9,253억 원으로 78.2% 증가함

〈표 2〉 해외 재보험 거래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수재보험료	출재보험료	수재손익	출재손익	재보손익
2014	16,288	34,633	3,969	-5,193	-1,224
2015	17,933	37,165	3,582	-5,982	-2,400
2016	19,319	37,676	4,313	-8,214	-3,901
2017	21,524	41,880	4,197	-9,253	-5,056

출처: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 통계

■ 최근 감독당국과 보험회사들은 해외재보험 수지 개선을 위해 요율규제 개정, 보유한도 관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일반손해보험 요율 사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재보험과 연계된 협의요율 사용 비중의 축소가 전망됨
 - 자사요율 및 판단요율 사용으로 협의요율로 인한 불필요한 재보험을 줄일 수 있게 됨
-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은 일반손해보험 보유한도를 늘려 출재를 줄이고 있음
 - 그러나 보유한도 확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해외재보험 수재 확대를 위해 정부의 협조와 보험회사의 노력이 요구되어짐

- 국내보험회사들의 해외재보험 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⁵⁾
 - 코리안 리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하여 상하지점 설립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사드문제 등으로 중국 보험감독당국의 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 해외재보험 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지식 습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국내재보험시장 환경 조성이 필요함
 - 보험회사들은 시장 경쟁을 통하여 다양한 요율 산출 능력을 배양하여야 함
 - 해외에서 활발한 금융재보험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금융재보험 시장 활성화가 요구됨 **kiri**

5) 정부의 지원으로 세계 보험업계 최초로 중국 내 현지법인 설립을 인가받은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있음